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윤학
현물결아트센터 대표·변호사

내게는 새해에 꾸는 꿈이 있다. 아니 우리 국민 모두의 꿈일 것이다. 진정 국민을 위한 정부의 탄생을 지켜보는 것! 그러나 '찍을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도처에서 들린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후보들은 기존의 정치 문법을 버리고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들어 낼 수는 없는 것일까.

그동안 대통령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됨으로써 온 나라를 해집어 놓은 폐해를 목격해 온 국민은 지금 정권교체의 마법에 걸려 있다. 이 집단적 마법을 이용해 정치인들은 정권교체를 마법의 주문처럼 외치며 권력을 서로 차지하려고 한다. 그러나 그동안 수없이 정권교체를 해오지 않았던가. 이번에 정권이 교체된다 한들 대통령에게 또다시 권력이 집중된다면 무슨 소용인가.

윤석열 후보는 정권교체를 위해 선거에 나섰다고 끊임없이 공언한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정권교체라는 대의명분마저 어찌면 선거일의 운에 좌우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야권 단일화'만이 정권교체의 확실한 길임을 수많은 여론조사가 명백히 알려 주고 있는데도 단일화에 선을 긋고 있다. 진정 정권교체가 그들의 소망일까?

윤석열에게 이런 선택은!

국민은 국가를 잘 이끌어 갈 비전을 바라며 정권교체를 말한다. 사실은 정권교체는 포장일 뿐 그 내용물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국민은 포장만 크게 외치는 윤 후보에게서 그 내용물을 보지 못해 불안해하고 있다.

과거 열렬한 지지를 받고 당선된 대통령들도 불행하게 몰락했다. 이승만도 박정희도 전두환도 노무현도.. 대통령 권한의 비대화가 그 원인이었다. 오늘 문재인 정권의 문제로 권력 집중 때문 아닌가. 주체할 수 없이 넘쳐 나는 권력으로 시장에 개입해 부동산이 폭등했고, 공수처라는 괴물 기관을 만들었으며, 탈원전 고집으로 자연환경만 파괴했다. 현 정권의 힘이 분산되어 있었더라면 이런 어처구니없는 발상은 아예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냥 놔두기만 하면 잘 해낼 국민들이 아닌가!

지금 국민이 진정 바라는 것은 정권교체라기보다 권력의 분산이다. 역대 가장 성공적인 정부를 이끌었다는 김대중은 선거를 앞두고 도박을 하지 않았다. 김종필과 의 연대로 대통령이 당선되어 권력을 나누었다. 경제·과학·환경은 김종필 총리에게, 법무·국방·행정은 대통령이 관장하는 연합정부를 꾸렸지만 국가적 역량을 키워 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윤 후보는 정권교체라는 외침이 그의 진심이라면 지금 도박을 해서 안 된다. 보수를 괴멸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데도 지지율이 오르지 못하든 보수 정객들, 그들이 단일화나 연합정부에 관심이 있을 리 없다. 권력이 비대해야 손쉽게 한 자리 차지할 그들이 권력의 분산을 바라겠는가. 역사는 인간에게 권력이 주어지면 남용하기 마련이라는 진실을 보여 주고 있다. 누가 대

령이 되어도 권력이 집중되면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고, 권력을 좇아 몰려든 부패한 자들이 권력을 휘두르게 된다.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척결하려다 시련을 겪으며 대통령 후보까지 나서게 된 윤 후보야말로 그걸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힘이 있을 때 힘이 약한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힘 있는 사람이다. 잠재 지지율이 높은 안 후보와 손을 잡고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여 권력집중으로 인한 폐해를 끊어 내겠다고, 과학 경제 교육 보건 분야에서 안 후보의 장점과 국방 법무 외교 행정 분야에서 윤 후보의 장점을 살려 국가에 헌신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한다면 투표장으로 향하는 국민의 발걸음은 가벼워질 것이다. 그렇게 새 대통령이 탄생된다면 갈라진 보수와 중도는 물론 진보층으로부터도 압도적인 지지를 받을 것이다. 윤 후보라면 한번 시도해 볼 일 아닐까.

윤 후보가 바라는 정권교체가 단지 문재인에서 윤석열로의 자리바꿈이 아니라, 권력의 집중으로 인한 폐해를 없애고 권력을 분산해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정권으로의 교체라고 믿고 싶다. 윤석열의 비전과 안철수의 비전이 빛을 발한다면 윤석열의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국가의 꿈도, 안철수의 과학기술 중심 국가의 꿈도 모두 이루어질 것이다. 아니 국민 모두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온 국민이 그런 희망을 품고 투표장에 나간다면 얼마나 축복받는 나라가 될 것인가.

※ 이 칼럼은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종교칼럼



중현
광주 중심사 주지

병원에 갔다. 내 앞에 다섯 명의 대기자가 있었다. 그런데 첫 번째 대기자가 진료실에 들어가서는 도통 나를 생각을 하지 않는다. 종종 있는 일이다. 뚱뚱한 몸집에 두툼한 인조 모피 코트를 입은 앞자리 아줌마가 참을성이 뚱뚱한지 옆 선생님은 금방 끝났는데 이 선생님은 왜 이렇게 오래 하나며 짜증을 내기 시작한다. 동조자를 구하는 눈빛으로 주변 사람들을 한 사람씩 스캔하면서 딱히 당신에게 하는 말은 아니라는 표정으로 말한다. 옆방 진료실은 아예 환자가 없다. 그러자 그녀의 앞에 앉아 있던 제법 나이 되어 보이는 아줌마가 거든다. 주변에서 흔히 보는 아웃도어 패션에 얼굴엔 노동의 흔적이 깊이 패어 있는 호리호리한 몸매의 소유자였다. 나는 짐사결과만 보면 되는데, 5시면 진료 끝나는데, 여기 빨리 보고 신경외과 가야 되는데... 몹시 마음이 급한 모양이다.

왜 이 정도도 못 기다릴까? 나이를 먹어도 아이들이랑 다를 게 없구나 싶었다. 조금의 불편함도 참지 못하는 게 요즘 사람들이다. 어른들은 하나같이 요즘 청년들은 끈기가 없다고 탓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어른들 역시 요즘 젊은이들이랑 다를 게 없다. 그냥 요즘 사람

방관자를 위한 안식처는 없다

들은 모두 하나같이 끈기가 없다.

끈기가 없다가 보다 자신들의 욕망에 지나치게 충실하다. 요즘 대선으로 연일 언론이 요란하다. 나라가 멀쩡한데 국운이 다했다고 한다.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제는 상승장구하는데도, 어떤 이들은 나라가 망했다고 난리다. 부동산 광풍은 돈에 미치지 않고는 어찌 저릴 수 있을까 싶은 정도다. 언론에서 매일 접하는 소위 '요즘 사람들'의 적나라한 욕망을 병원 진료실에서 목도한다.

그런데 마음이 급했던 아웃도어 패션 아줌마가 급기야는 자기가 먼저 하고 싶은 모양이다. 아줌마들 특유의 혼잣말인데 주변 사람들 다 들으라는 의도를 강하게 담은 말투로 내 이름을 거론한다. 대기자 명단을 보니 내 이름 뒤엔 한 사람 밖에 없다. '뭐야? 대꾸를 해야 되나? 기다리기는 매 한가지인데 사정 봐 달라는 건 아니지 않나? 나를 지목하면서 한 말도 아닌데 굳이 대답할 필요가 있을까?' 갑자기 내가 두 아줌마의 풍성한 대화의 성찬 위에 먹음직한 반찬으로 올라 버렸다. 구경꾼들은 '나는 저들과 달라, 나는 저런 부류의 인간이 아니야'라는 생각으로 자신을 방어하며, 안 보는 척 열심히 관전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상황이 급변했다. 그저 하나 끝날 차며 구경이나 하고 싶은데 저들은 나를 그냥 두질 않을 심산이다. 몹시 당혹스럽다. 두 아줌마의 '이건 당신에게 하는 말은 아니지만, 굳이 당신을 지목해서 하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당신이 새겨 듣고 알아서 대답해 달라'는 은근한 협박이 슬금슬금 부담스럽게 조여 온다.

가만히 있는 것이 옳아서가 아니라, 어찌해야 할 지 판단이 서질 않은 나는 그냥 모른 척 멍고 있었다. 내 앞의 환자가 진료실에서 나오자마자, 도망치듯 열린 진료실로 들어갔다. 순간 스스로 멍찏하고 놀랄 정도였으니 압박이 은근 대단했던 모양이다. 통상 환자가 나가고 나면 의사는 처방전을 내린단짓 하는 간단한 일을 본다. 앞의 환자 나가고 다음 환자가 들어가기까지 약간의 공백이 있지만, 그런 공백을 완전히 무시하고 얼른 들어가 버린 것이다.

진료실 밖의 분위기를 알 리 없는 의사는 나를 보더니 한편으로는 반가워하면서도 왜 이렇게 빨리 들어왔냐는 눈치다. 앞의 환자 처방전만 내리면 되니 잠깐 기다리라며 열심히 키보드를 두드린다. 의사 옆에 앉은 나는 꿀 먹은 벼어리처럼 한동안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 무슨 일인데 이러네 저러네 평가하면서 구경만 하는 것은 그리 힘들지 않다. 그러나 자신이 그 상황 속으로 빨려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달라진다. 인간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항상 주체로서 살아간다. 그 누구의 삶도 대상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 본인에게는 본인이 영원한 주체가기 때문이다. 방관자처럼 멀찌감치 떨어져서 바라보는 삶은 언제든 깨질 수 있는 아주 연약한 유리방 같은 것이다. 그러나 나라 상관없는 일이라며 명하니 있다가는 뒤통수 맞고 우왕좌왕하기 십상이다. 더구나 욕망이 날 것 그대로 살아서 팔짝팔짝 뛰는 요즘엔 더더욱 구경꾼처럼 살기 힘들다. 방관자를 위한 안식처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기 고



김상민
호남대 시교양대학 교수

지역 대학의 구성원 중 한 명으로서 지역 대학의 위기는 피부에 직접 와닿는 실감이다. 향후 몇 년간은 지역 대학의 학생 미충원 뉴스가 입시철마다 언론 미디어를 가득 채우게 될 것이다. '벚꽃 피는 순서로 대학이 망한다'는 자주 섞인 우스갯소리는 이제 현실을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는 말이 되어 가고 있다. 부실 운영 탓에 더 이상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대학은 절차에 맞게 정리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겠으나, 중요한 것은 이 위기가 일부 부실 대학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몇몇 거점 국립대학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지역 대학들이 학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중도 탈락률에서 보자면 거점 국립대학마저 이러한 위기에서 자유롭다고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기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 많은 이들이 학령 인구의 감소나 대학 자체의 경쟁력 문제를 일차적 원인으로 들겠지만, 이러한 원인만을 그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늘 그래왔듯 사태의 본질을 외면하는

벚꽃이 다 피고 지면

발상이다. 당연한 얘기를 다시 반복하자면, 이 위기는 경제·교육·문화의 수도권 집중화에서부터 파생된 결과이기도 하다. 각 지역 정치권에서 경쟁적으로 제출하고 있는 '메가시티' 같은 해결책 역시 이러한 원인에 근거해 제출된 구상일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해결책이 가시화되거나 실현되는 속도보다 수도권으로의 집중화가 더 빨리 진행되면서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대학 진학을 앞둔 지방의 젊은 세대들에게 대한민국의 이제 '수도권 (미래)과 '비수도권 (과거)'으로 나뉘질 것이다. 지방은 이미 장성한 자식이다 떠나 버린 노부부의 쓸쓸한 고택이 되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예로 일자리와 교육은 우리의 삶을 꾸려가는 데 필수적 요소이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 이상 좁혀지기 힘들 정도로 심대하다. 이로 인한 청년들의 역의 유출 역시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과 관련해 그 누구도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이나 격차에 대해 근본적 의미를 제기하는 것 같지는 않다. 한 시인의 시구처럼 '모두가 병들었지만, 아무도 아프지 않'고(이성복, '그날'), 그저 '땀뿜한 한 체' 중심의 각자도생만이 존재하는 이상한 상황인 것이다.

그렇다고 이 상황과 관련하여, 지역 대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반복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지역 대학의 위기와 지원에만 초점을 맞추는 순간, 수도권과 지방 간의 불균형이

라는 거대한 구조적 문제에 관한 사유는 대학의 경쟁력 문제로 환원되어 버리고, 해결에 대한 고구(考究) 역시 멈춰 버리고 말 것이다.

중요한 것은 지역 대학의 위기를 그 자체의 단일한 문제로 보기보다는 지방이 겪고 있는 총체적 위기를 사유하는 출발점으로 삼는 것이다. 지역 대학의 위기는 교육·취업·연구·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지방이 겪고 있는 위기를 압축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지역 대학의 위기가 어디서 근원하는 것인가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야말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에 관한 근본적이고 거시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수도권이란 지방이란 개인들의 삶은 어떤 방식이든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정든 부모와 고향을 떠나, 자신이 자라온 터전에서 삶의 이야기를 이어갈 수 없는 지방의 젊은 세대들이 직면한 현실은 씁쓸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이러한 현실이 1970-80년대의 산업화 시대가 아닌, 더 이상 공간의 제약 받을 필요가 없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활짝 개화한 오늘날 대한민국의 모습이라는 사실은 더욱 문제적이다. 수도권 집중은 계층·세대 간의 또 다른 불평등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이지만, 어느새 당연한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유력한 대선 후보든 정책의 입안자든 일말의 책임이라도 느끼는 사람이라면 광범위한 지역 간 불평등이 어떻게 구조화되고 있는지 지역 대학의 위기를 통해 다시 살펴 보기 바란다.

社說

박빙 승부 속 대선후보 4자토론도 치열했다

어제 열린 여야 대선후보들의 첫 4자 TV토론은 예상 외로 치열했다. 이날 오후 8시부터 두 시간 동안 열린 방송3사 합동 초정토론회는 여야 4당 후보들이 처음으로 모두 참가했다. 각 후보들은 상대의 약점을 파고들면서 자신의 강점을 부각시키는 등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이번 TV토론은 부동산 문제를 비롯해 외교·안보, 일자리·성장 등 주제 토론과 후보들이 수도권을 쥐고 상대 후보에게 자유롭게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후보들은 첫 주제 토론인 부동산 문제부터 뜨겁게 부딪쳤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집중 부각시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외교·안보와 일자리·성장 등 경제 문제 주제토론에서 전문적인 용어와 구체적인 수치를 인용, 자신이 전환의 시기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후보를 향해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채우는 'RE 100'과 녹색분류체계인 'EU

택스노미'를 아느냐는 질문으로 윤 후보와 자신의 경제 정책 능력 차이를 부각시켰다.

안철수 후보는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다른 후보들로부터 이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반면 윤 후보는 수도권 토론 시간에 이 후보를 향해 대장동 의혹 추궁에만 지나치게 매달렸고 정책 분야 토론에선 전문성 부족의 한계를 드러냈다.

TV토론은 정책 경쟁보다는 네거티브 경쟁으로 흐르고 있는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들에게 선택의 시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했고 그만큼 관심 속에 진행됐다. 비록 양강 구도 속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는 이 후보와 윤 후보에 집중된 측면이 없지 않았지만 그나마 후보별 정책과 철학을 검증하는 자리였다. 앞으로 대선 전까지 남은 세 번의 TV토론이 보다 활발한 정책 대결로 후보들을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

광주·전남 확진자 1000명 방역체계 재점검을

광주·전남 지역에서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대확산이 본격화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설날이었던 지난 1일 광주와 전남에서 각각 618명, 464명 등 모두 1082명이 신규 감염돼 사상 처음 1000명을 넘어섰다. 2일에도 광주 694명, 전남 248명 등 942명이 새로 확진됐다. 애초 우려했던 대로 설 연휴 기간 이동 인구가 늘어난 탓에 확산세가 가팔라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 연휴 기간 내내 연일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닷새 만에 광주 2771명, 전남 1736명 등 4507명이 감염됐다. 이미 지배종으로 자리 잡은 오미크론 변이의 영향 탓이다.

특히 요양시설, 병원, 학교 등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지속되고, 가족·지인 간 접촉 감염도 늘고 있다. 광주는 동구 요양병원, 광산구 요양시설의 누적 확진자가 각각 423명, 163명에 이른다. 북구 요

양병원, 광산구 요양병원, 북구 어린이집의 누적 확진자도 92명, 69명, 74명에 달한다. 전남은 22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 연휴 기간 1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온 곳은 여수시(311명), 목포시(279명), 순천시(226명), 무안군(125명), 나주시(102명) 등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추세라면 광주·전남 지역에서 확진자가 더욱 폭증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방역 당국은 기존 방역체계가 오미크론 확산을 억제하는 데 한계를 드러낸 만큼 이를 보완할 대응 체계를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 광주 55%, 전남 63%에 그치고 있는 백신 추가 접종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방안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아울러 요양시설과 병원, 학교 등 집단 시설에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고 있는 만큼 대응에 허점을 없는지 방역 체계를 총체적으로 재점검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설을 며칠 앞둔 어느 날, 동네 목욕탕을 찾았다가 마주친 풍경이다. 8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과 카운터의 직원이 한참 동안 실랑이를 벌이는 것이었다. 할머니 말인즉슨 코로나 접종을 3차까지 마쳤으니 목욕탕에 들어가겠다는 것이고, 카운터 직원은 QR 인증을 하지 않으면 입장이 안 된다는 주장이었다. 할머니는 뻔하라는 사이에 사람 말을 안 믿어 준다면서 재차 사정했다. 그러나 직원은 '법을 어기면 큰일 난다'며 거부했다.

한쪽에서 조용히 소란을 들어보니, 건망증이 심한 할머니가 휴대폰을 집에 놓고 와 벌어진 일이었다. 결국 할머니는 고집을 접고, 어디론가 연락을 하기 위해 카운터 전화를 들었다. 하지만 곧바로 번호판을 누르지 못한 채 1-2분 동안 머리를 가웃거렸다. 중얼중얼 번호를 떠올리려 애를 쓰더니 10여 차례 시도 끝에 '연결이 됐다'면서 카운터 건너편 의자에 앉았다.

이후 상황은 더 이상 지켜보지 못했지만 목욕을 마친 뒤 카운터 직원으로부터 들을 수 있었다. 할머니가 전화를 건 지 20분 정도 지나서 남편으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휴

대폰을 들고 왔다는 것이다. 할머니는 보란 듯이 의기양양하게 QR 인증을 한 뒤 목욕탕 안으로 들어갔다고 했다.

건망증 탓에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는 할머니의 한 시간에 걸친 QR 인증 소동을 보면서, 이게 어디 이 할머니만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그 할머니와 연세가 비슷한 부모님 생각이 하루 종일 많이 편지 못했다. 단골 할머니 한 명쯤은 눈 감아 쥐도 될 터인데, 미안함에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방역 수칙을 고집한 응통성 없는(?) 직원

도 알람기보다는 대견하고 고맙게 느껴졌다. 일흔이 넘으면서부터

코로나와 어머니

갑기를 사시사철 말고 사시는 어머니는 아직 코로나 접종을 못하셨다. 코로나 첫 해에는 무시워서 피하다가 이듬해에는 접종할 만하면 감기가 도져 실패했다. 잦은 감기와 위염 등으로 매주 병원을 찾는 어머니는 접종을 못한 탓에 매년 PCR 검사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하신다. 이번 설에 어머니는 감기가 낫는 대로 접종을 하겠다고 각오를 다지셨다. 이제 설도 지났으니 그만 하면 족한 줄 알고 코로나가 슬슬 물러나길 바란다. /재희회 사회부장 chae@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